

장성 꽃길축제는 끝나지만... “황룡강의 봄꽃은 계속됩니다”

내달 6일까지 황룡강 나들이객 맞이기간 운영

놀이시설·수상자전거·푸드트럭 등 운영 지속

장성군이 (洪)길동무 꽃길축제가 마무리되는 29일 이후에도 황룡강 나들이객 맞이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30일부터 6월 6일까지 8일간이다.

황룡강 일원에 활짝 핀 금영화, 꽃 양귀비 등 10여 종이 봄꽃의 개화 시기는 오는 6월 중순 무렵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장성군은 축

제 이후에도 황룡강 방문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나들이객 맞이 기간을 갖는다.

맞이 기간에도 황룡강변을 달리는 전동열차와 어린이 놀이시설, 수상자전거 등을 계속 운영된다.

옛 공설운동장 부지에 마련된 푸드트럭과 먹거리부스도 문을 연다.

장성군 관계자는 “나들이객 맞이

기간에도 방문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내소 운영과 환경 정리, 교통 통제 등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 체험 부스와 황룡강 노란꽃장터는 운영하지 않는다. 또 소규모 공연도 열리지 않는다.

한편,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는 30년 역사의 흥길동 축제와 황룡강의 꽃을 접목시킨 장성의 대표 봄축제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축제는 소규모 공연과 전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목을 끌었다. /장성=심재식 기자



무안 감성버스킹 군민 참여 프로그램 공모

내달 7일까지 접수

무안군은 주요 관광지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2022 무안군 감성버스킹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6월 7일까지 군민 참여 프로그램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끼와 재능을 보유한 개인·단체·동아리 등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는 버스킹 공연과 프리마켓 체험부스 운영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 6월 7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 우편, 이메

일로 공연동영상 또는 체험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 자체 심사를 통해 선발된 공연팀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무안군 주요 관광지와 불무공원, 남악중앙공원 등에서 문화예술 초청팀과 함께 버스킹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조영희 관광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활동 무대가 줄어든 재능 있는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 끼를 발산하고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시기 바란다”며 “버스킹 무대를 통해 관광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고흥 아쿠아 관절 운동 교실 ‘호응’

유연성 향상·관절염 치유 효과 탁월

고흥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쿠아(수중) 관절 운동교실’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수중 관절 운동교실은 지난 5월 24일부터 1기(5월~8월), 2기(9월~11월) 6개월 간, 매주 화·목요일, 오후 2~4시까지 문화회관 수영장에서 1,584명을 대상으로 총 48회 운영하며, 수강생은 보건소 운동처방사의 지도하에 수중 관절운동·에어로빅, 스트레칭 개인별 맞춤형 수중운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수중 운동은 물속에서 균형감과 균

곡운동, 신진대사와 균력강화, 지구력과 유연성 기르기 등 모든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으로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해 관절염 치유 효과는 물론 재미도 있어 인기가 높다.

군 관계자는 “수중운동은 부력을 이용한 운동으로 체중에 부담이 없고 부상의 위험이 적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약해진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신체 균형 빨달 등 대상자들의 건강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흥=최혁민 기자

함평 2023년 국비 확보 총력 대응

행안부·국토부 등 방문 6개 사업 53억원 전의

이병용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최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을 찾아 면담을 갖고, 지역의 현안 SOC 사업 및 재난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해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진의한 ‘23년도 국비 확보 주

요 현안사업은 ▲국도23호선(학교) 도로시설 개량사업 기본계획 반영 ▲내고 기각지구 풍수해생활관 정비 사업(10억) ▲대동면 하수도 중점 관리 정비 사업(18억) 등 총 6개 사업 53억 원이다.

이병용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원활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정섭 기자

순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행사

내달 2일 오후 4시부터 조례호수공원 광장서 개최

순천시가 오는 6월 2일 오후 4시부터 조례호수공원 광장에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인이 지켜야 하는 펫티켓과 입양홍보 등을 통해, 인간과 반려동물, 반려인과 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6월 2일이 ‘유기’로 발음되는 점에 착안하여 지난해 6월 2일을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로 정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행사를 추진했다.

올해 행사는 순천시 반려유기동물 보호위원회, 반려동물 문화사업단, 반려복지협회, 수의사회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한 인형극(풀트) 공연,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 상담, 수의사 건강검진 상담, 반려동물을 관리에 필요한 용품 전시·체험, 유기동물 입양관리 방법 및 펫티켓 준수사항, 동물등록·동물보호법 개정 사항 홍보,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순천=조순의 기자

해남,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창업지원사업 실시

내달 10일까지 넥스트 로컬 4기 참여자 모집

해남군은 ‘2022년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 로컬(NEXT LOCAL) 4기 참여자를 다음과 1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이다. 해남군에서 사업 참여·창업을 희망해 선발되면 지역 자원조사활동(최대100만원/인, 2개월), 창업교육, 사업화지원금(최대 7,000만원/팀), 멘토링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전국 자치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며, 전국 20개 자치체가 참여한다.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청년 유입과 청년 창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

고 있다.

신청은 서울시 넥스트로컬 홈페이지(www.seoulnextlocal.co.kr)를 통해 온라인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 넥스트로컬 운영 사무국’(☎ 02-2133-44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해남군의 농수축산물 등 풍부한 지역자원이 청년 창업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되어 지역을 활성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강진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추진

12개 동네의원과 협약체결…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앞장

강진군보건소는 군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은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 중 우울·음주·불안·자살충동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강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등 적기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지만, 대부분 자각하지 못하거나 정신질환에 대한 거부감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 축소로 불안, 우울증, 등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하고 있다.

군과 협업해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은 강진의료원, 강진88정형외과, 다나통증의학과의원, 메디타임의원, 병영한국의원, 새중앙의원, 성모의원, 성전하나의원, 아나과의원, 연세의원, 오케이내과의원, 우리들내과의원 등 12개소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은 정신건강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분들이 관심을 갖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 사업”이라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조기 상담과 치료를 제공해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 정신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한국여성농업인 광양시연합회
내일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사)한국여성농업인 광양시연합회 주최·주관으로 ‘2022년 한여농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광양시 중동 새마을금고 본점 옆 주차장에서 오는 31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행사는 우리 지역 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농산물을 소비촉진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소비자는 더욱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인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 형식으로 운영된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수박, 애호박, 파프리카, 토마토 등 지역 제철 농산물들이 판매된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이번 직거래장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판매 부진을 극복하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된다”면서 “직거래장터가 지역 농부와 시민이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장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화순 드림스타트 아동

‘안경 구입비’ 지원

화순군이 운영하는 드림스타트가 성장기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 50여 명에게 안경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동 안경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안경 착용 시기를 놓치거나 시력 저하로 교정이 필요한 아동의 눈 건강 관리를 위해 지역 안경점과 연계해 안경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경 구입은 6월부터 10월까지 협약을 맺은 안경점에서 하면 된다.

안경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드림스타트에서 우편으로 지급한 쿠폰을 가지고 지역 협약점에 안경을 구입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소총전소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중흥동(여수국가산업단지)에 준공된 ‘여수 제1호’ 수소총전소는 300kg/hr에 달하며, 총전기 3기를 설치해 시간당 최대 승용차 60대(5kg), 수소버스 15대(20kg 분량)을 충전 할 수 있다.

제2호, 3호 수소총전소는 오는 8월 10일 오후 4시까지 넥스트로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7월~8월 지역자원조사를 거쳐 8월 사업화과정 평가를 진행한다.

/순천=조순익 기자

화순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사례 관리와 보건, 복지 등 42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순=주용현 기자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

모험 시설 운영 본격 재개

보성군이 ‘놀이숲’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제암산자연휴양림이 본격적으로 모험 시설 운영을 재개했다.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모험 시설은 △곰썰매, △전동휠, △어드벤처, △짚라인 등이다. 곰썰매와 전동휠은 오전에만 체험할 수 있고, 어드벤처와 짚라인은 오후 프로그램만 운영된다.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이용일 3일 전 까지 가능하며 곰썰매만 당일 현장상황을 고려 후 개인 고객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기상 상황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니 매표소 안내(☎ 061-850-8708)를 통해 운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모험 시설 곰썰매는 출발지 높이 15m, 총 길이 238m 규모로 설계를 태고 내려가며 자연을 느끼며 높은 곳에서 호수를 조망할 수 있어 많은 체험객이 찾고 있다. 특히, 4~5세의 아이들도 부모님과 동반 탑승이 가능해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보성=장국도 기자